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 도시 리듬과 집단기억(PANEM)을 통한 천안역 일대 도시 재편 연구

- 시간의 층위와 보행 네트워크를 통한 역세권 점진적 전환 연구

### PANEM: Urban Reconfiguration of Cheonan Station through Accumulated Memory and Rhythms

- A Study on incremental Station-Area Transition through Temporal Layering and Pedestrian  
Networks

○이 예 찬\*

Lee, Ye-Chan

이 상 윤\*\*

Lee, Sang-Yoon

####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PANEM (Place-Accumulated Memory-Network) as a framework for reconfiguring Cheonan Station by integrating urban rhythms and collective memory-dimensions often overlooked in conventional regeneration. Unlike prior approaches focused mainly on physical renewal, PANEM emphasizes temporality and traces as drivers of gradual urban transition. The framework combines rhythm analysis, memory inventory, and pedestrian network mapping to address disconnection, decline, and identity loss. The resulting strategies-Memory Layering, Urban Loop, Elevated Memory, and stepwise Phasing-formalize an integrated model that links past-present-future and enhance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station-area regeneration.

키워드 : 주택유형, 도시 및 단지지역, 계획&설계, PANEM, 도시 리듬, 집단기억, 도시 재편

Keywords : Housing, Urban Rhythm, Collective Memory, PANEM, Urban Reconfiguration

민과 방문객의 일상적 리듬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 1. 서론

천안역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의 결정적  
점이자, 지역 생활권의 주요 관문으로서 오랫동안 상징적  
위상을 지녀왔다. 그러나 철도 기반 인프라는 도시 내부의  
동서 연결을 구조적으로 단절시키며, 구도심과 신도심의  
기능 분화를 가속화하였다. 이로 인해 상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성이 분산되고, 보행 네트워크가 약화되었으며, 역 주  
변은 통과 위주의 이용 패턴이 고착되었다.

\*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도시재생 정책은 노후 건축물 정  
비, 환경 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 물리적 성과를 도출했지  
만, 이러한 개입은 주로 단기적 외형 개선에 집중되었고,  
도시의 시간성 및 집단 기억을 재해석하여 구조적으로 반  
영하는 접근은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공간은 개  
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 정체성은 약화되고, 지역 주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역세권 재생은 주로 토지  
이용 효율성, 교통 결절성 강화, 상업 활성화 등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유럽과 일본 일부  
도시에서는 역사적 기억을 공간에 재해석하거나 보행 중  
심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시도되었으나,  
한국적 맥락에서 '기억'과 '리듬'을 통합적으로 다룬 재편  
전략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천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 도시라는 특수성을 지니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회  
복과 도시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재생 담론이 간과한 집  
단 기억과 도시 리듬을 핵심 변수로 삼아, 천안역 일대 재  
편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주본 연구의 목적은 천안역을 대상으로 도시 리듬과 집  
단 기억을 통합하는 새로운 도시재편 프레임워크 '파넴  
(PANEM)'을 정립하고, 이를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 \*남서울대 건축학과 대학생 과정

\*\*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Namseoul  
University, slee@nsu.ac.kr

이 연구는 2025년도 남서울대 학부과정 중 건축설계 실험 결과의  
일부임.

기존 재생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간성과 흔적의 가치를 회복하여 도시 정체성을 재구축한다. (1)“기억의 층위화(Memory Layering)”와 “보행 네트워크 복원(Urban Loop)”을 결합한 설계 전략을 도출한다. (2)“단계적 전환(Phasing)”을 통해 실패 비용을 줄이고, 시민 참여와 실험적 개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재편 가능성을 제시한다. (3)학술적으로는 도시 리듬과 집단 기억을 통합하는 모델을 국내 도시설계 담론에 정식화하고, 실무적으로는 역세권 재생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프레임과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도시 리듬(Rhythms)

도시는 반복과 변주의 리듬으로 조직된다. 출퇴근 흐름, 장날의 패턴, 야간·주말 이용의 변화는 시간적 구조를 형성하며, 공간의 쓰임과 의미를 규정한다. 리듬 분석은 물리적 형태와 별개로 장소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게 하며, 재편 과정에서 유지·완화·증폭해야 할 활동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2.2 집단 기억과 흔적(Collective Memory)

기억은 물리적 흔적과 서사로 축적된다. 거리와 광장, 시장의 동선, 오래된 건축물의 형태는 공동체의 경험을 매개한다. 기억을 삭제하는 개발은 단기적 개선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정체성의 공백을 초래한다. 반대로 기억을 활성화하는 설계는 시민의 참여와 장소 애착을 촉진한다.

### 2.3 전술적 도시주의와 점진적 전환

임시적·소규모 개입을 통해 변화를 실험하고 학습하는 전술적 도시주의는 대규모 선형 계획의 경직성을 보완한다. 단계적 전환은 실패 비용을 줄이고, 이용자 반응을 반영하여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4 PANEM의 정의와 구성

PANEM은 Place-Accumulated Memory-Network의 합성 개념이다. (A) 장소의 의미와 기존 구조를 파악하고, (M) 축적된 기억을 유형·무형의 층위로 정리하며, (N) 보행 중심 네트워크를 복원·확장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보존이 아닌 ‘활성화’로서의 기억, ② 네트워크 우선의 공간 전환, ③ 실험과 학습을 통한 점진적 확장, ④ 시민 참여에 의한 공감대 형성.

## 연구 방법 및 적용 대상

### 3.1 방법

(1) 문헌 고찰: 리듬, 기억, 전술적 도시주의 관련 핵심 이론을 정리하였다. (2) 리듬 읽기: 관측 가능한 시간대별 활동(통행, 체류, 상업 활동)의 패턴을 도식화하였다. (3) 기억 인벤토리: 역사·시장·골목·공공시설 등 장소적 기억을 유형별로 목록화하였다. (4) 네트워크 분석: 단절 지점과 보행 루프 가능축을 도출하였다. (5) 전략 합성: 네 가지 설계 프레임으로 통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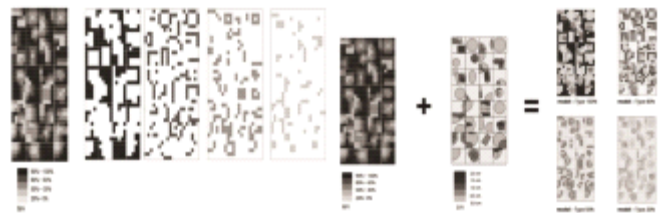
### 3.2 적용 대상

대상지는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보 생활권이다. 주요 이슈는 철도로 인한 동서 단절, 남북 방향의 약한 연결, 역 주변의 통과 위주 이용, 전통시장과 역사 시설의 단절적 위치, 상부 공간의 활용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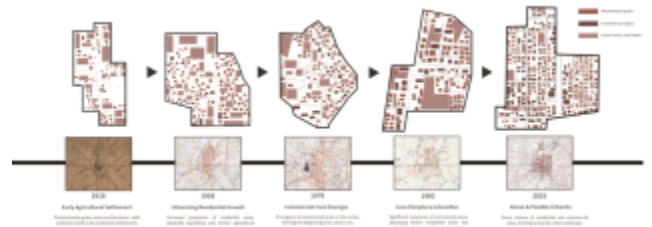
## 4. 설계 프레임과 전략

### 4.1 Memory Layering(기억의 층위화)

도시의 기억을 물리적·프로그램적·서사적 층위로 구분한다. 물리적 층위는 보존 가능한 구조와 재해석 가능한 구조로 나누고, 프로그램적 층위는 시장·문화·이동 등 활동 범주로 정리한다. 서사적 층위는 장소 이야기를 수집하여 동선과 공간 장면에 배치한다. 결과물은 ‘기억 지도’와 ‘활동 시나리오’로 정리되어 다른 전략의 근거가 된다.



[그림 1: PANEM 개념 모형]



[그림2. 천안역 일대 도시 리듬 변화]

### 4.2 Urban Loop(보행 순환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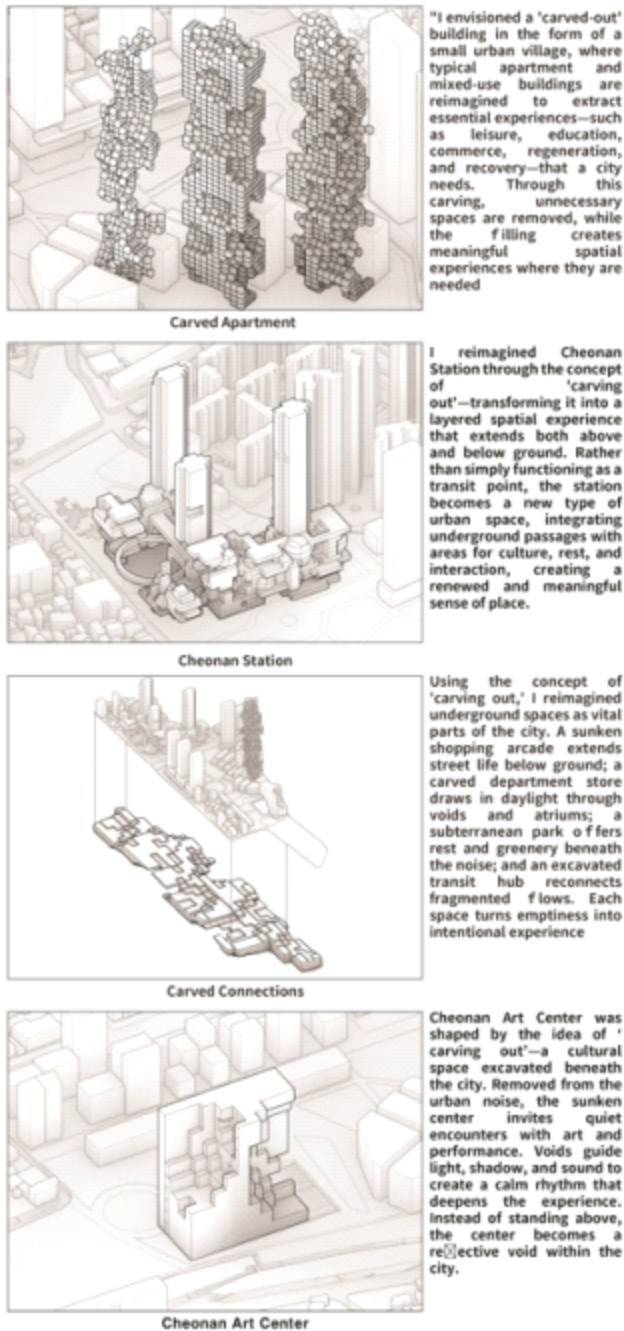
역사를 중심으로 ① 1차 루프(역-시장-광장-문화거점)와 ② 2차 루프(주거지-학교-근린상권)를 계획한다. 루프는 신호·단차·점유물로 끊긴 보행을 연속화하고, 일정 간격의 체류 노드(포켓 광장, 그늘 시설, 앉음 요소)를 배치하여 체류 리듬을 확장한다.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동선을 분리해 안전성을 높인다.



[그림3: 보행 순환축 계획도]

#### 4.3 Elevated Memory(상부 연결)

철도 상부에 가벼운 보행교와 전망 테크를 설치하여 동서 보행을 직접 연결하고, 철도 이용과 도시 이용이 교차하는 장소성을 만든다. 상부 구조물은 야간 조명과 전시·공연 등 프로그램과 결합해 기억의 ‘장면’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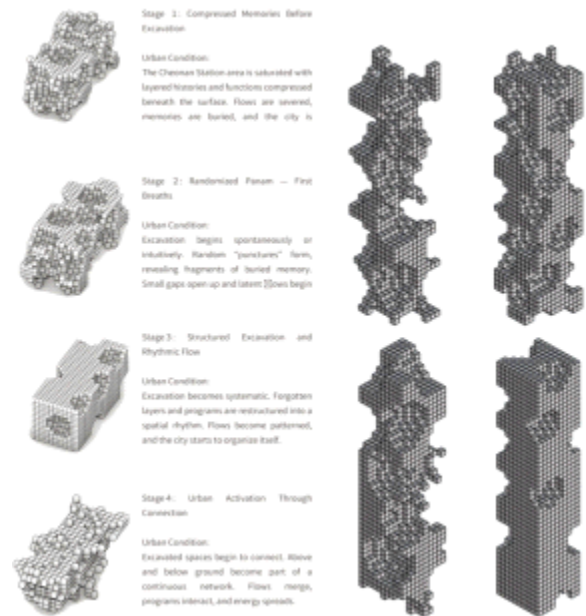


[그림4: 상부 연결 개념도]

#### 4.4 Phasing(단계별 확장)

단기(1-2년): 전술적 개입을 통해 루프의 핵심 구간을 시험 운영한다. 중기(3-5년): 상부 연결 및 거점 리더자리를 추진한다. 장기(5년 이후): 민관 협력형 운영 모델을 정착

시키고, 루프를 인근 생활권으로 확장한다.



[표 1: 단계별 전술적 개입-중기 정비-장기 확장의 실행 로드맵]

#### 4.5 Program Weaving(프로그램 직조)

루프 위 노드에 시장 재생(장날 활성화, 지역 생산자 직거래), 문화 프로그램(야외 공연, 아카이브 전시), 이동 지원(환승 안내, 공유 모빌리티), 지역 서비스(돌봄·교육)를 직조하여 일상 리듬을 풍부하게 한다.

#### 5. 기대 효과와 평가 프레임

##### 5.1 공간적 효과

보행 네트워크의 연속성 회복, 단절 지점의 감축, 체류 노드의 밀도 증가가 기대된다. 상부 연결을 통해 동서 접근성이 개선되고, 역 주변이 통과 공간에서 체류 중심 거점으로 전환된다.

##### 5.2 사회·문화적 효과

전통시장과 역사 공간의 기억이 재해석되어 지역 정체성이 강화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된 서사가 축적되고, 야간·주말 활성화 등 이용 리듬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 5.3 운영·거버넌스

단계별 전술적 개입은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고, 성과에 따른 조정과 협업을 유도한다. 운영 체계는 지자체-철도 운영기관-상인·주민 조직의 협력 구조로 설계한다.

#### 5.4 평가 프레임

정량 지표(보행 연결 길이, 체류 시간, 프로그램 가동 빈도)와 정성 지표(장소 만족도, 기억 공유도)를 결합해 단계별로 평가한다.

#### 6. 결론

본 연구는 천안역 일대를 사례로 하여 도시 리듬과 집단 기억을 통합하는 PANEM(Place-Accumulated Memory-Network) 프레임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재편의 구체적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억의 층위화와 네트워크 복원을 결합하여, 과거-현재-미래가 중첩되는 다층적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공간 재배치가 아니라, 도시 리듬의 지속성과 집단 기억의 축적을 동등한 계획 요소로 다루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전술적 도시주의(tactical urbanism)'를 매개로 하는 단계적 개입-중기 정비-장기 확장 전략을 체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행 네트워크의 순환 구조와 상부 연결 체계가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며, 소규모 전술적 실험이 점차 대규모 도시 전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역세권 개발 논의가 주로 경제성·효율성에 치우친 것과 달리, 정체성과 일상 리듬을 동등한 계획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와 장소성 회복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한계로는, 첫째, 제안된 전략이 정성적 분석과 공간 시뮬레이션에 주로 의존하였기에, '정량적 데이터(이용자 흐름, 경제적 효과, 환경적 성과 등)'의 축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다. 둘째, 제시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파일럿 시범 사업을 통해 지표 기반 성과를 측정하고, 운영 주체·재원 모델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행 네트워크 활성화, 상부 연결 시스템, 단계별 개입 전략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PANEM 프레임을 단순한 개념적 제안에서 실행 가능한 도시 재생 도구로 발전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Lefebvre, H. (2004). *Rhythmanalysis: Space, Time and Everyday Life*. Continuum.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 Alexander, C., Ishikawa, S., & Silverstein, M. (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Hillier, B., & Hanson, J. (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lthorpe, P. (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Gehl, J. (2010). *Cities for People*. Island Press.
- Lydon, M., & Garcia, A. (2015). *Tactical Urbanism*. Island Press.
- Hou, J. (2010). *Insurgent Public Space*. Routledge.
- Montgomery, J. (1998). Making a City: Urbanity, Vitality and Urban Design. *Journal of Urban Design*, 3(1), 93-116.
- Kostof, S. (1991). *The City Shaped*. Thames & Hudson.